

정세악화의 주범, 평화의 파괴자

올해 정초부터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독 및 연합 군사훈련을 펼치며 벌려 놓고있는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광들이 위협계선을 넘어서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 5월 25일부터 남조선군부것들은 미국상전과 함께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합동화력적멸 훈련》을 《합판》의 명목 밑에 수많은 민간인들까지 끌어 들인 가운데 진행해오고있으며 30일부터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주도하에 《합동도서방어종합훈련》이란것을 벌려놓았다.

뿐만아니라 5월 31일에는 《대량살상무기전파방지》의 미명하에 공화국에 대한 해상봉쇄를 노린 《다국적연합해상차단훈련》이라는것을 강행하였다.

대결과 전쟁열에 들뜬자들

의 무분별한 북침전쟁광들의 집중적발로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그 칠새없이 벌어지고있는 전쟁 불장난들이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이미전에 짜놓은 북침전쟁계획들에 따라 각이 한 방식으로 발발되고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강행한 《연합합동화력적멸훈련》 역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남조선미국특해공군동동무력이 《최신무기》들을 동원하여 공화국을 《응징》한다는 북침전쟁각본에 따른것으로서 철저히 북침전쟁수법,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방식을 숙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합동도서방어종합훈련》이라는것도 특해공군무력을 총동원하여 벌리는 종합훈련으로서 그 누구의

《도발》을 《격퇴, 분쇄》한다는 구실밑에 세운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반공화국군사적도발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호전광들은 5일부터 미국 열매스커에서 진행되는 다국적연합공중훈련인 《레드 플래그》(《붉은 기발》)에도 참가하여 대결광기를 부리었다. 이것은 가혹이나 첨예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전장을 극도로 가열시키는 위험한 불장난이며 제 소굴에서 대결광기를 부리다 못해 미국에까지 건너가 상전의 전쟁머슴군노릇을 하는 부나비들의 자멸적당동이다. 현실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는 누구이며 전쟁의 불구름이 어디서 밀려오는가를 세상사람들에게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최춘성

일본이 우리 민족과 인류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를 대량양에 기어코 방류하려 하고있다. 섬나라것들은 이미 2021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방류계획을 담은 《처리수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쿄전력회사는 2023년 봄부터 발전소에서 1km정도 떨어진 앞바다의 해저로 핵오염수를 방류시키기로 하였다. 지금 핵오염수방류는 눈앞에 막대한 일로 되고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생겨난 엄청난 량의 핵오염수를 방류한다면 대량양을 말그대로 방사능에 오염된 바다, 생태계가 파괴된 《죽음의 대양》으로 되게 될것이며 이것은 우리 민족을 비롯한 인류의 생명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게 된다. 하지만 섬나라것들은 변변스럽게도 오염수에서 대부분의 방사성물질을 제거하였다고 하면서 기어코 대평양에 핵오염수를 방류하려고 발광하고있다. 현실은 섬나라것들이야말로 이미전

에 우리 민족을 비롯한 인류에게 저지른 만고죄악우에 새로운 대피약을 덧씌고있는 불구대천의 원수, 인류공동의 숙적이란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섬나라것들의 핵오염수방류계획을 묵인비호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핵오염수시찰단과견물음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얼마전 일본을 행각하고 남조선에 돌아온 시찰단것들은 언론과의 회견에서 시찰기간 일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받았다. 핵오염수방류의 안전성평가에서 전진이 있었다는데 대해 밝혔다고 한다. 한편 윤석열역적패당은 일본이 남조선현지시찰단과견물음을 승인해준것은 핵오염수방류에 대한 남조선내부의 우려에 《성의》를 보여준것이다. 이번 시찰단의 조사결과를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핵오염수방류에 반대하지 않을 립장을 드러내놓았다.

남조선핵오염수시찰단의 일 본행각결과발표와 역적패당의 간판밑에 섬나라것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내외의 비난을 누갓히고 핵오염수방류놀음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범피적기도의 산물이다. 이것은 섬나라것들의 환경파괴범죄에 대한 공모이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생태환경을 엄중히 파괴하는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범죄이다. 섬나라것들에게 굽신거리면서 천년숙적이 하는것이 라면 던져놓고 추종하는것이 윤석열역적패당이 떠드는 《일본과의 협력》의 진면모이며 대외의교의 추악한 정체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은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를 10L씩 마셔도 없었다고 췌치는 역적들로 시찰단이 구성되었다. 시찰단의 일본행각이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방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립중하고 선전해주는 결과만을 초해하였다. 예상대로 일

본의 핵오염수방류를 찬성하는 《박수부대》, 《핵오염수방류를 응원하라간 응원단》이다. 이번 시찰로 핵오염수방류가 현실화되었다. 핵오염수가 깨끗하다면 《대통령실》부터 핵오염수를 주문하여 마셔야 한다. 《정

물수입에 반대하는 《대국민서명운동》이라는것을 벌리면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 힘》이 일본의 편을 들며 면죄부를 주고있다. 윤석열이 직접 핵오염수방류와 후쿠시마산수산물수입제거의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규탄하고있다. 천년숙적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서슴없이 팔아먹고 반공화국침략공조놀음에 매달리다 못해 나중에는 섬나라것들의 환경파괴범죄까지 공모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민족의 존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특등사대매국노들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고조되는 민심의 불안과 저주

오염수방류계획을 묵인비호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핵오염수시찰단과견물음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얼마전 일본을 행각하고 남조선에 돌아온 시찰단것들은 언론과의 회견에서 시찰기간 일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받았다. 핵오염수방류의 안전성평가에서 전진이 있었다는데 대해 밝혔다고 한다. 한편 윤석열역적패당은 일본이 남조선현지시찰단과견물음을 승인해준것은 핵오염수방류에 대한 남조선내부의 우려에 《성의》를 보여준것이다. 이번 시찰단의 조사결과를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핵오염수방류에 반대하지 않을 립장을 드러내놓았다.

의 산물이다. 이것은 섬나라것들의 환경파괴범죄에 대한 공모이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생태환경을 엄중히 파괴하는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범죄이다. 섬나라것들에게 굽신거리면서 천년숙적이 하는것이 라면 던져놓고 추종하는것이 윤석열역적패당이 떠드는 《일본과의 협력》의 진면모이며 대외의교의 추악한 정체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은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를 10L씩 마셔도 없었다고 췌치는 역적들로 시찰단이 구성되었다. 시찰단의 일본행각이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방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립중하고 선전해주는 결과만을 초해하였다. 예상대로 일



《평화적인 초분문화제를 방해하지 말라고 서로 팔짱을 끼고 분향소를 지키고 문화제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순식간에 피성이 터지고 울음이 쏟아졌다. 《모조리 체포하라.》는 지시에 따라 경찰이 쳐들어왔다. 이것은 윤석열역도의 반로동정책을 반대하여 분신사살한 로동자의 분향소를 강제철거시킨 역적패당의 파쑈적 폭거를 폭로한 어느한 남조선 로동자의 성토이다. 알려진것처럼 윤석열역적패당은 생존권을 위해 열기하여나선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단체들의 집회와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을 떠들고있다. 이에 편승하여 《국민의 힘》것들은 행정부것들과 그 무슨 《당정협의회》라는것을

벌려놓고 《불법집회를 엄단하겠다.》, 《법률을 개정하여 불법집회와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여당이 지원해주겠다.》고 하면서 로동단체들에 대한 야로동단체들의 집회와 시위에 펼쳐나선 로동자들을 다치게 하는대로 폭행하며 현행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있는것이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파쑈적 폭거는 생존의 권리와 민주

집회와 시위를 발표하여 로조를 《불법집단》, 《조직폭력배집단》으로 몰아 말살하려는 역적패당의 폭악에 당당히 맞설것을 다짐하면서 《전국민총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독교교회협의회》 등 300개의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들과 공동 투쟁기구를 결성하고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을 정

말 말 말))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

—《윤석열부터 하루에 1L씩 마시라고 해! 안전성을 립중하겠다고 오염수를 마실 윤석열의 입술에 건배!》 (일본의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방류를 묵인비호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하여 전라북도 군산의 한 어민이 터뜨린 분노의 목소리)

—《우리 바다가 화장실물에 비유하며 방사능의 위험성을 감추려는 대국민기만이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라는자가 후쿠시마오염수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화장실물에 마신다고 죽지는 않지만 마시지는 않는다.》고 뇌까리는데 대해 한 야당의 대변인이 야유조소하며 한 말)

인비호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하여 전라북도 군산의 한 어민이 터뜨린 분노의 목소리)

—《우리 바다가 화장실물이 되는것은 괜찮은가. 후

후쿠시마오염수를 화장실물에 비유하며 방사능의 위험성을 감추려는 대국민기만이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라는자가 후쿠시마오염수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화장실물에 마신다고 죽지는 않지만 마시지는 않는다.》고 뇌까리는데 대해 한 야당의 대변인이 야유조소하며 한 말)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파쑈적 만행

민적인 탄압만행을 저구 부추기고있다. 보수언론들도 《공공장소 무단점거, 쓰레기투기》, 《불법시위에 따른 주민불편극도》 등으로 악의에 차서 떠들며 로동단체들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사회적거부감과 불만을 야기시키려 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파쑈경찰은

주의를 말살하고 진보세력을 매장하기 위한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하기에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단체들과 각계층은 역적패당이 경찰을 《인간사냥군》으로 만들고 《살인폭력면허》까지 쥐여주었다고 하면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얼마전 《민주로총》은 긴

기적으로, 조직적으로 벌려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력사적으로 민심에 역행하는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하였다. 근로대중의 정당한 요구와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의 말로도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 본사기자 전명진

인권불모지에서 터져나오는 절규

청춘, 그것은 꿈과 희망이고 열정과 활력이다. 그러나 절망과 타락, 허탈과 불안속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바로 남조선의 청년들이다. 그들속에서 류행되는 말이 있다. 《남조선사람이 된것이 싫다.》 짧은 이 말속에 남조선청년들의 비참한 처지가 그대로 어려있다. 날로 더해만지는 경제적빈곤과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불평등, 개인주의와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풍조, 범람하는 범죄와 음흉하는 전쟁위협 등 온갖 사회악이 도사리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청년들의 생활환경이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이 하늘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등락곡》마련을 위해 손끝에서 피가 나도록 과외로돈을 하여 돈을 모아 공부해 해도 대학졸업중은 곧 실업중으로 되고 있다. 대학졸업생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청년들이 실업난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품도 없이 거리를 방황하고있다. 취직후에 갸기로 하고 받은 대출금을 대학졸업후 몇년이 지나도록 못지 못해 거액의 빚을 걸머지고 최하층으로 굴러떨어지고있는 청년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뿐이 아니다. 정의와 진리,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지향한다고 하여 파쑈폭압의 희생물이 되고 대

결과 전쟁행동의 수치스러운 대포발, 제물로 되고있는것도 남조선청년들이다. 이처럼 불의와 악으로 가득찬 남조선사회인것으로 하여 청년들속에서는 련애, 결혼, 해산, 집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등을 포기하는 《포세대》가 생겨나다 못해 자기의 모든것을 포기하는 《N포세대》까지 생겨나고 《남조선이 싫어서》라는 소설이 가장 인기를 끄는가 하면 남조선들 《망한민국》, 《개한민국》, 《불지옥》으로 개탄하면서 해외로 떠나는 기피현상 등이 보편화되고있다. 앞날에 대한 리상과 포부를 잃고 삶자체를 포기한 남조선청년들이 같길은 비관과 절망속에 잠겨 몸부림치든가 아니면 살인과 강탈, 폭력

등의 범죄의 길에 들어서는 것밖에 없다. 남조선에서는 각종 범죄와 사기합작조직에 망라된 불량자들중 청년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꿈과 희망을 잃고 절망속에 몸부림치다가 자살의 길을 택하는 청년들도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해당 기관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용담자의 90%가 《이 땅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그중 많은 사람들이 《남조선사람이 된것이 싫다.》고 하였다. 이것은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제도가 빛어낸 필연적산물이다. 청년들이 절망과 타락속에 헤매이다가 세상을 등지는 남조선의 현실은 오늘이 암담하고 미래도 없는 인간생지옥의 한산한 풍경이다. 본사기자 박진홍

《윤석열이 재난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 남조선지역에서 윤석열역도퇴진을 위한 초분집회와 시위 전개 —

